■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51-475.
http://doi.org/10.17948/kcs.2021..92.451

원주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

송인성(宋仁成)***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결과
4.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원주 지역 출신 70대와 20대 남녀 화자의 음성 자료를 구축하고 모음의 포먼트 분석과 모음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세대별 단모음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원주 지역어 단모음은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전설 모음에서 /ㄱ/와 /ㅚ/의 경우 70대 화자는 이를 대부분 단모음으로 발음하였지만 20대 화자는 이를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였다. /ㅖ/와 /ㅐ/의 경우 70대 남녀 화자는 이 두 모음을 변별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0대 남성 화자는 혀의 고저와 전후를 나타내는 F1, F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70대 여성 화자는 F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상명대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이 연구는 2020년 운곡학회 학술원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저자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상명대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나타났다. 반면에 20대 남녀 화자는 /ㅖ/와 /ㅐ/를 변별하여 발음하지 않았다. F1과 F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모음이 모음 공간에서 중첩되어 실현되었다. 다음으로 후설 모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ㅡ/의 경우 F2에서 세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ㅣ/-/ㅡ/와 /ㅡ/-/ㅜ/의 두 모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70대와 20대 화자 모두 /ㅡ/가 전설 모음인 /ㅣ/보다 후설 모음인 /ㅜ/에 가깝게 실현되었다. /ㅓ/의 경우 F1, F2 모두 성별,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ㅜ/와 /ㅗ/의 경우 70대 남녀 화자는 F1, F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대 남녀 화자는 혀의 전후인 F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ㅜ/와 /ㅗ/의 거리 차이를 통해서도 세대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방언학과 음성학 연구에서 관심이 부족하였던 원주 지역어를 대상으로 음향음성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70대와 20대 화자의 단모음 특징과 세대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원주 지역어, 단모음, 세대, 조음 위치, 제1포먼트, 제2포먼트, 유클리드안 거리.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원주 지역 70대와 20대 남녀 화자를 대상으로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음향적 특성을 분석하고 세대 간 단모음의 실현 양상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지역 방언의 단모음에 관한 연구는 서울, 경상, 전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단모음 체계 및 음향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세대 및 성별에 따른 단모음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음향음성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각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세대별 단모음의 차이를 다룬 연구에서는 /ㅟ/와 /ㅚ/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실현 여부, /ㅖ/와 /ㅐ/의 변별 여부, /ㅡ/와 /ㅓ/ 및 /ㅗ/와 /ㅜ/의 조음 위치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1] 이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서울: 정일진, 「표준어 단순 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 『말소리』 33, 대한음성학회, 1997, 111-125면;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21-2, 한국음운론학회, 2015, 289-314면; 강지은・공은정,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8-4, 한국음성학회,

〈표 1〉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세대별 단모음의 특징

특징
① /ㅟ/와 /ㅚ/의 단모음 및 이중모음 실현 여부
② /ㅔ/와 /ㅐ/의 변별 여부
③ /ㅡ/의 조음 위치
④ /ㅓ/의 조음 위치
⑤ /ㅗ/, /ㅜ/의 조음 위치

이처럼 국어에서 각 지역 방언의 단모음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현대 각 지역 방언의 모음 체계가 지역적인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동일 지역 내에서도 세대 및 성별과 같은 사회적 변인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2)]

강원 방언은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되었고, 강원 방언 내에서 원주 지역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드물다. 이는 원주가 중부 방언에 속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표준어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3)] 각 지역 방언의 세대별 단모음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원주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관찰된 바가 없다.

원주 지역어 단모음에 관한 기존 연구는 60대, 70대 이상의 노년층 화자

2016, 39-47면. 제주: 김원보,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 『언어과학회』 39, 언어과학연구, 2006, 125-136면; 신우봉,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전남: 하영우, 「순천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언어와 정보사회』 35,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018, 379-405면; 하영우・신우봉,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7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299-320면. 대구: 장혜진・신지영,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음성학적연구」,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2006, 15-30면; 안미애, 「대구 지역어의 모음체계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2. 부산: 황미경, 「부산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20 등.

2) 곽충구,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59-60면.

3) 장향실 외, 『원주 지역어 조사 연구』, 원주시, 2018, 287-288면.

를 중심으로 단모음의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4] 김봉국에서는 원주 남부 지역인 강릉, 삼척, 정선, 원주의 음운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원주 지역은 남녀 2명(남80대, 여60대)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송인성 외에서는 원주 지역어 70대 이상의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조사하였다. 이 두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주 지역어의 단모음은 /ㅣ, ㅖ, ㅐ, ㅟ, ㅚ, ㅡ, ㅓ, ㅏ, ㅜ, ㅗ/ 10개의 목록을 지니고 있다. 원주 지역어 노년층 화자들은 /ㅖ/와 /ㅐ/를 구별하여 발음하고 /ㅟ/와 /ㅚ/를 이중모음보다 단모음으로 실현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강원 영서 방언에 속하는 원주 지역어는 다른 지역 방언과 차별되는 원주 지역어만의 특징이 존재한다.[5]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모음 체계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세대 및 성별과 같은 사회적 변인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간 방언 연구와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원주 지역어를 대상으로, 70대와 20대의 세대별 단모음의 실현 차이를 음향음성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정밀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피험자

이 연구에서는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주 지역 출신 70대와 20대 남녀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70대 발화는 장향실 외에서 원주의 9개 지역별로 2~3명의 방언 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음성 자료를 이용하였다.[6] 20대 발화는 원주 지역 출신 20대 피험자를 섭외하여 음성 녹음을 수행한 결과물이다. 〈표 2〉는 피험자 정보이다.

---

4) 김봉국,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송인성 외, 「원주 방언의 음운 연구」, 『우리어문연구』 62, 우리어문학회, 2018, 305-341면 등.
5) 장향실 외, 앞의 책.
6) 장향실 외, 앞의 책.

〈표 2〉 피험자 정보

70대						20대					
남성	나이	출생·성장지	여성	나이	출생·성장지	남성	나이	출생·성장지	여성	나이	출생·성장지
m01	79	지정	f01	80	호저	m11	26	시내	f11	20	시내
m02	82	문막	f02	78	소초	m12	20	시내	f12	21	문막
m03	78	신림	f03	81	지정	m13	25	시내	f13	26	시내
m04	78	소초	f04	77	문막	m14	24	시내	f14	25	문막
m05	77	판부	f05	87	부론	m15	28	시내	f15	23	원주
m06	75	판부	f06	77	시내	m16	25	시내	f16	25	원주
m07	77	귀래	f07	76	시내				f17	22	소초
m08	78	귀래	f08	80	신림						
m09	79	부론(충주)	f09	77	소초(영월)						
m10	77	부론	f10	74	귀래						

70대 피험자는 총 20명(남10/여10)으로 출생지와 성장지가 대부분 원주이다. 전체 피험자 가운데 두 명의 화자는 출생지 및 성장지가 원주가 아니지만(영월, 충주), 이 화자들의 출생지는 현 거주지(원주 부론면, 소초면)와 인접 지역이고 두 명의 피험자 모두 70년 가까이 현 거주지인 원주에서 살았다. 피험자의 학력은 피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무학(3), 초 중퇴(3), 초졸(8), 중 중퇴(1), 중졸(2), 고졸(1), 미상(2)으로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과거 및 현재에 피험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70대 남성은 평균 78세(표준편차 1.82)이고, 70대 여성은 평균 78.7세(표준편차 3.59)이다.

20대 피험자는 총 13명(남6/여7)으로 출생지와 성장지가 모두 원주이다. 20대 피험자 중에서 11명은 원주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2명은 원주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다. 20대 남성은 평균 24.7세(표준편차 2.9)이고, 20대 여성은 평균 23.1세(표준편차 1.9)이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원주 지역어 70대의 단모음을 분석하기 위해 장향실 외에서 구축한 자료에서 단모음별로 5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장향실 외에서는 원주 지역의 어휘와 음운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추진편찬위원회의 『지역어조사 질문지』의 어휘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단어 총 1,092개(어휘 808개, 음운 284개)를 선정하였다. 제보자들에게 사진 및 그림을 보여주며 질문하거나 어휘의 특징이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음성 녹음에 사용한 기기는 Zoom사의 H1 녹음기로, 음성 녹음은 원주 각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제보자의 집인 조용한 실내에서 진행하였다.[7]

〈표 3〉은 분석 단어의 목록이다. 표준발음법에 제시된 10모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2~3음절의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부 단모음의 경우 1음절과 4음절 단어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한 70대의 음성 분석 대상 자료의 수는 총 507개로 나타났다.[8]

〈표 3〉 분석 단어 목록

단모음	분석 단어				
ㅣ	이웃	이모	이틀	이레	이슬비
ㅔ	에누리	에미	게	메뚜기	베개
ㅐ	애꾸	애비	앵두	개	개울
ㅟ	위쪽	뒤	귀	귀뚜라미	뉘
ㅚ	외삼촌	외할머니	왼손	왼쪽	쇠
ㅡ	들기름	그믐	그네	그루	그물
ㅓ	어제	어깨	어디	어른	어머니
ㅏ	아이	아버지	아내	아래	아홉
ㅜ	오늘	오빠	오디	오금	오이
ㅗ	우박	우물	우수리	구석	구멍

20대의 경우 음성 녹음은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피

7) 장향실 외, 앞의 책, 296-316면.

8) 70대의 경우 총 1,000개(화자 20명*모음10개*단어5개)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원주 지역별 2~3명을 대상으로 음성 녹음을 진행할 때 시간적·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제보자의 음성을 녹음하지 못하고 일부만 녹음을 진행하기도 하여 자료의 수가 적다.

험자에게 소음이 없는 조용한 실내에서 휴대폰 고품질 음성 녹음앱을 표본추출률 44,100Hz, 양자화 16bit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음성 녹음을 수행하였다. 분석 단어는 70대와 동일하며, 피험자가 컴퓨터 화면에서 제공되는 퀴즈를 보고 실험 단어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녹음이 진행되었다. 녹음은 2회 진행하였고 전체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녹음이 완료되면 피험자에게 녹음 파일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받고 이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20대의 음성 분석 대상 자료는 총 650개(화자 13명*모음10개*단어5개)였다.

모음의 분석 방법을 소개하면, 먼저 /ㅟ/와 /ㅚ/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지각적인 분석과 함께 포먼트 전이구간의 실현 여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머지 /ㅣ, ㅖ, ㅐ, ㅏ, ㅡ, ㅓ, ㅗ, ㅜ/ 8개 모음은 제1포먼트(이하 F1)와 제2포먼트(이하 F2)를 측정하고,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을 토대로 두 모음 사이의 거리 차이를 비교하여 음향적 특징을 분석하였다.[9] 모음의 포먼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 v6150을 이용하였고, 통계 검정은 R(4.1.0)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포먼트 값은 모음의 안정 구간의 가운데 지점에서 측정하였고, 모음의 안정 구간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모음의 가운데 위치를 측정하였다. 포먼트 측정에서 남성은 최대 포먼트 값을 5,000Hz, 여성은 5,500Hz로 설정하였고, 포먼트의 수는 5개, 윈도우의 길이는 25ms로 설정하였다.

3.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결과

1) /ㅟ/와 /ㅚ/의 실현 양상

먼저 세대별로 /ㅟ/와 /ㅚ/가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여부를 파악하였다. 〈표 4〉는 원주 지역어의 세대별 /ㅟ/와 /ㅚ/ 실현의 분석 결과이다. 7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단모음 [y, ø]로 105회(89.0%), 이중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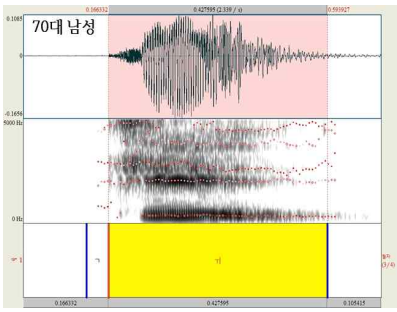
9) 두 지점 (p1, p2)와 (q1, q2)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은 $\sqrt{(p1-q1)^2+(p2-q2)^2}$ 이다.

[wi, we]로 11회(9.3%), 그리고 단모음으로부터 비원순음화되거나 혹은 이중모음에서 활음이 탈락한 [i, e]로 2회(1.7%) 실현하였다. 반면에 2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단모음 [y, ø]로 3회(2.3%), 이중모음 [wi, we]로 126회(96.9%), 비원순화되거나 활음이 탈락한 [i, e]로 1회(0.8%) 실현하였다. 이를 통해 7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대부분 단모음으로 실현하고, 2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실현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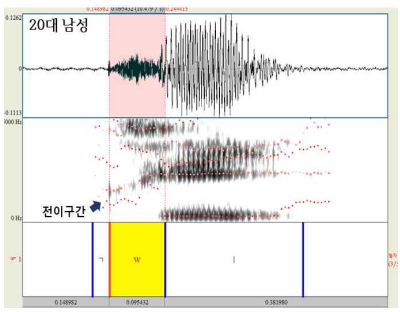
〈표 4〉 세대별 /ㅟ/와 /ㅚ/의 실현 양상(회, %)

세대	성별	단모음 [y, ø]	이중모음 [wi, we]	비원순/활음탈락 [i, e]	합계
70대	남	60(89.6)	7(10.4)	0(0.0)	67(100.0)
	여	45(88.3)	4(7.8)	2(3.9)	51(100.0)
	합계	105(89.0)	11(9.3)	2(1.7)	118(100.0)
20대	남	1(1.7)	59(98.3)	0(0.0)	60(100.0)
	여	2(2.9)	67(95.7)	1(1.4)	70(100.0)
	합계	3(2.3)	126(96.9)	1(0.8)	1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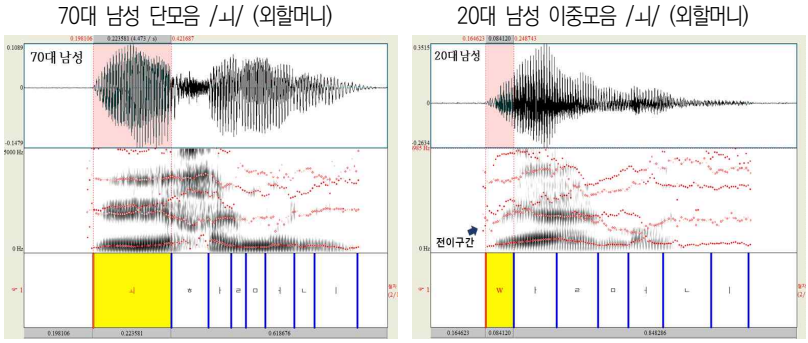
70대 남성 단모음 /ㅟ/ (귀)



20대 남성 이중모음 /ㅟ/ (귀)



〈그림 1〉 세대별 /ㅟ/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실현 사례



〈그림 2〉 세대별 /ㅚ/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실현 사례

〈그림 1〉은 /ㅟ/(귀)를 70대 남성 화자가 단모음으로 20대 남성 화자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사례이고, 〈그림 2〉는 /ㅚ/(외할머니)를 70대 남성 화자가 단모음으로 20대 남성 화자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사례이다. /ㅟ/와 /ㅚ/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된 우측 그림의 경우, 활음 /w/의 전이 구간이 관찰된다.

70대 화자에게 /ㅟ/와 /ㅚ/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된 단어는 남성 4명, 여성 3명에게서 '위쪽'(3회), '귀뚜라미'(4회), '외할머니'(2회), '왼손'(2회)이다. 20대 화자에게 /ㅟ/와 /ㅚ/가 단모음으로 실현된 단어는 남성 1명, 여성 1명에게서 '외할머니'(1회), '위쪽'(1회), '쇠'(1회)이다. 이를 통해 /ㅟ/와 /ㅚ/를 이중모음이나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특정 화자나 특정 단어에 편중되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준발음법 제4항에 따르면 /ㅟ/와 /ㅚ/는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현실 발음을 근거로 하여 각 지역에서 다수의 화자들이 /ㅟ/와 /ㅚ/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발음의 차이는 세대별 차이로 나타나는데, 70대 이상 노년층은 대체로 /ㅟ/와 /ㅚ/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70대 이하 세대의 경우 /ㅟ/와 /ㅚ/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0]

10) 이승재,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원, 1993, 23-38면; 권경근, 「현대국어의 모음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2001, 29-48면; 곽충구, 앞의

선행 연구의 논의와 동일하게 원주 지역어 70대 화자는 /ㅟ/와 /ㅚ/를 주로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이와 달리 2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였다. 이를 통해 원주 지역어 /ㅟ/와 /ㅚ/의 발음에서 세대 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ㅣ, ㅖ, ㅐ, ㅡ, ㅓ, ㅏ, ㅜ, ㅗ/의 실현 양상

다음으로 원주 지역어 /ㅣ, ㅖ, ㅐ, ㅡ, ㅓ, ㅏ, ㅜ, ㅗ/에 나타나는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본다. 세대별 모음 포먼트 값의 차이와 모음 간 거리 차이를 분석하여 /ㅖ/와 /ㅐ/의 변별 여부, /ㅡ/의 조음 위치, /ㅓ/의 조음 위치, /ㅜ/와 /ㅗ/의 조음 위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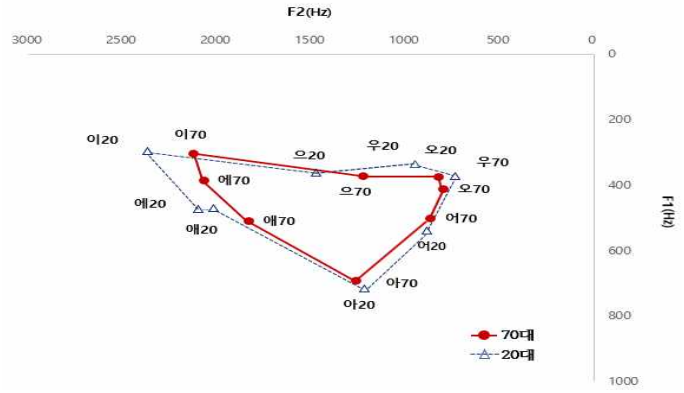
/ㅣ, ㅖ, ㅐ, ㅏ, ㅡ, ㅓ, ㅗ, ㅜ/의 8개 모음을 대상으로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와 〈그림 3〉은 70대와 20대 남성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과 〈그림 4〉는 70대와 20대 여성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이다.[11]

〈표 5〉 원주 지역어 70대와 20대 남성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단위: Hz, 괄호는 표준편차)

		ㅣ	ㅖ	ㅐ	ㅏ	ㅓ	ㅗ	ㅜ	ㅡ
70대 남성	F1	304.1 (27.2)	386.4 (47.9)	510.3 (90.1)	693.9 (95.7)	503.3 (89.6)	413.3 (49.2)	373.9 (51.2)	372.4 (108.8)
	F2	2129.3 (315.7)	2075.5 (189.4)	1835.6 (180.1)	1265.1 (160.3)	870.0 (243.6)	801.5 (155.3)	831.9 (176.1)	1231.0 (246.9)
20대 남성	F1	296.9 (40.6)	471.0 (44.7)	474.5 (45.6)	717.2 (78.5)	540.5 (76.7)	373.3 (59.8)	338.1 (53.6)	364.0 (47.7)
	F2	2369.4 (220.1)	2021.1 (209.1)	2100.9 (191.9)	1219.6 (163.1)	888.4 (97.2)	740.6 (183.7)	953.2 (241.4)	1473.9 (242.7)

글;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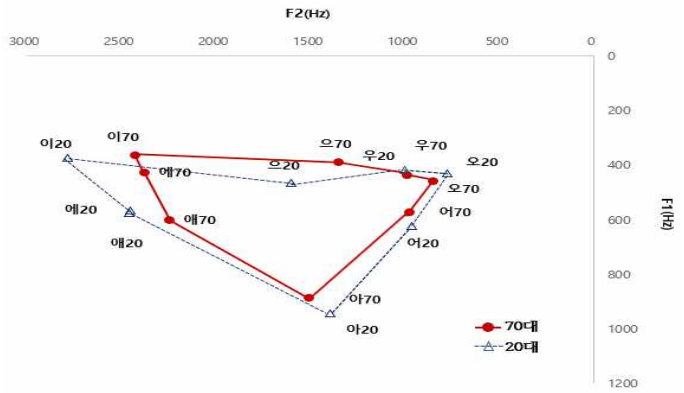
11) F1은 혀의 높낮이(개구도)와 F2는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이 있다. F1은 저모음일수록 값이 크고, F2는 전설 모음일수록 값이 크다.



〈그림 3〉 원주 지역어 70대와 20대 남성의 단모음 실현 양상

〈표 6〉 원주 지역어 70대와 20대 여성의 단모음 포먼트 평균값(단위: Hz, 괄호는 표준편차)

		ㅣ	ㅔ	ㅐ	ㅏ	ㅓ	ㅗ	ㅜ	ㅡ
70대 여성	F1	361.7 (54.3)	423.5 (52.3)	600.8 (103.7)	886.7 (151.8)	571.1 (68.4)	456.0 (66.2)	435.4 (137.4)	385.7 (54.4)
	F2	2426.1 (188.0)	2376.7 (156.2)	2246.2 (211.3)	1503.1 (271.4)	976.0 (113.2)	852.0 (130.8)	988.7 (182.1)	1350.1 (229.9)
20대 여성	F1	373.3 (81.7)	575.5 (94.5)	566.2 (105.0)	943.7 (135.2)	622.8 (97.1)	429.7 (34.5)	417.6 (77.4)	465.3 (76.9)
	F2	2781.6 (216.2)	2457.1 (212.8)	2451.9 (286.0)	1394.3 (121.7)	962.1 (86.4)	776.6 (135.9)	1001.9 (177.0)	1599.7 (324.6)



〈그림 4〉 원주 지역어 70대와 20대 여성의 단모음 실현 양상

원주 지역어에서 세대 및 성별에 따른 /ㅖ/와 /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 성별, 모음을 독립변수로, F1과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F1은 세대($F(1, 249)=32.224$, $p<0.001$), 성별($F(1, 249)=77.705$, $p<0.001$), 모음의 종류($F(1, 249)=49.168$, $p<0.001$)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모음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70대 남녀 화자는 /ㅖ/와 /ㅐ/가 F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0대 남녀 화자는 /ㅖ/와 /ㅐ/가 F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는 세대($F(1, 249)=42.650$, $p<0.001$), 성별($F(1, 249)=184.231$, $p<0.001$), 모음의 종류($F(1, 249)=7.340$, $p<0.05$)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모음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70대 남성 화자는 /ㅖ/와 /ㅐ/가 F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70대 여성 화자와 20대 남녀 화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주 지역어 /ㅖ/와 /ㅐ/는 세대 간 차이를 드러낸다. 70대 남녀 화자의 경우 혀의 고저 위치를 나타내는 F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20대 남녀 화자의 경우 F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원주 지역어 70대 남성 화자의 경우 F2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원주 지역어 70대 여성 화자 및 20대 남녀 화자는 F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원주 지역어 70대 남성 화자는 혀의 고저와 전후 위치, 70대 여성 화자는 혀의 고저 위치에 의해 /ㅖ/와 /ㅐ/를 구별하여 발음하지만, 원주 지역어 20대 남녀 화자는 /ㅖ/와 /ㅐ/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ㅖ/와 /ㅐ/의 구별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차이는 두 모음 간 거리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ㅖ/와 /ㅐ/의 거리 차이와 /ㅣ/와 /ㅖ/ 두 모음 사이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ㅣ/와 /ㅖ/의 거리 차이는 70대가 남성 98, 여성 79이고, 20대는 남성 389, 여성 382이다. 그리고 /ㅖ/와 /ㅐ/의 거리 차이는 70대가 남성 270, 여성 220이고 20대가 남성 80, 여성 10이다. 즉, /ㅣ/와 /ㅖ/의 거리의 경우 70대가 20대보다 상대적으로 가깝

게 실현되고, /ㅖ/와 /ㅐ/의 거리의 경우 70대가 20대보다 더 멀게 실현된다. 이처럼 전설 모음들의 거리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원주 지역어 70대 화자는 /ㅖ/와 /ㅐ/를 혀의 고저에 의해 구별하여 실현하고 20대 화자는 /ㅖ/와 /ㅐ/를 구별하지 않고 실현하였다.

〈표 7〉 /ㅣ/-/ㅖ/ 및 /ㅖ/-/ㅐ/의 거리(단위: Hz)

모음, 성별 / 세대	/ㅣ/ - /ㅖ/		/ㅖ/ - /ㅐ/	
	남	여	남	여
70대	98	79	270	220
20대	389	382	80	10

다음으로 /ㅡ/의 음가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세대,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고 /ㅡ/의 F1과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ㅡ/의 F1은 세대($F(1, 103)=6.641$, $p<0.05$), 성별($F(1, 103)=22.042$, $p<0.001$)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ㅡ/의 F1은 여성 화자에서 세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남성 화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는 세대($F(1, 103)=17.547$, $p<0.001$), 성별($F(1, 103)=6.708$, $p<0.05$)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ㅡ/의 F2는 남녀 화자 모두에게서 세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원주 지역어 /ㅡ/의 음가를 분석한 결과, 남녀 화자 모두 혀의 전후 위치에서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된다. /ㅡ/의 조음 위치는 혀의 고저 위치를 나타내는 F1에서 여성 화자의 경우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반면에 남성 화자의 경우는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ㅡ/의 조음 위치는 혀의 전후 위치를 나타내는 F2에서 남녀 화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원주 지역어 /ㅡ/는 여성 화자의 경우 혀의

고저와 전후 위치에서 세대 간 조음 위치의 차이가 나타나고, 남성 화자의 경우 혀의 전후 위치에서 세대 간 조음 위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 지역어 /ㅡ/의 세대별 포먼트 값을 비교해 보면, 혀의 고저를 나타내는 F1에서 남성의 경우 70대(372.4Hz)가 20대(364.0Hz)보다 크게 나타나서 저모음으로 실현되고, 여성의 경우 70대(385.7Hz)가 20대(465.3Hz)보다 작게 나타나서 고모음으로 실현되어 남녀가 서로 다른 실현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혀의 전후를 나타내는 F2에서는 남녀 화자 모두 공통적으로 70대(남: 1231.0Hz, 여: 1350.1Hz)가 20대(남: 1473.9Hz, 여: 1599.7Hz)보다 값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ㅡ/의 경우 F2에서 세대 간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를 통해 /ㅡ/의 경우 20대가 70대보다 전방화되어 실현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원주 지역어 20대 화자에게서 /ㅡ/가 전방화되어 실현되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ㅣ/와 /ㅡ/ 사이의 거리와 /ㅡ/와 /ㅜ/ 사이의 거리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ㅣ/-/ㅡ/ 및 /ㅡ/-/ㅜ/의 거리(단위: Hz)

모음, 성별 / 세대	/ㅣ/ - /ㅡ/		/ㅡ/ - /ㅜ/	
	남	여	남	여
70대	901	1076	399	365
20대	898	864	521	599

70대의 경우 /ㅣ/와 /ㅡ/의 거리 차이는 남성이 901, 여성이 1076이고, /ㅡ/와 /ㅜ/의 거리 차이는 남성이 399, 여성이 365이다. 20대의 경우 /ㅣ/와 /ㅡ/의 거리 차이는 남성이 798, 여성이 521이고, /ㅡ/와 /ㅜ/의 거리 차이는 남성이 864, 여성이 599이다. 원주 지역어 70대와 20대는 모두 /ㅡ/가 전설 모음인 /ㅣ/보다 후설 모음인 /ㅜ/와 더 가깝게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원주 지역어 /ㅡ/ 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F2)에서 세대 간 조음 위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고모음 /ㅣ/, /ㅡ/, /ㅜ/ 간의 거리를 비교한 결과 70대와 20대 모두 /ㅡ/가 /ㅜ/와 가깝게 실현되기 때문에, 20대의 /ㅡ/가 전설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후설 위치에서 /ㅜ/와 가깝게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원주 지역어 /ㅓ/의 조음 위치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세대, 성별을 독립변수로 하고 /ㅓ/의 F1과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F1은 세대($F(1, 113)=11.434$, $p<0.001$), 성별($F(1, 113)=23.576$, $p<0.001$)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세대별, 성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F2는 성별($F(1, 113)=34.877$, $p<0.001$)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ㅓ/의 F2는 남녀 화자와 모두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원주 지역어 /ㅓ/는 F1과 F2를 분석한 결과 남녀 화자 모두에게서 세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원주 지역어 /ㅓ/의 경우 70대와 20대가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한 조음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음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대 및 성별에 따른 /ㅜ/와 /ㅗ/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대, 성별, 모음을 독립변수로, F1과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F1은 세대($F(1, 220)=8.027$, $p<0.01$), 성별($F(1, 220)=41.698$, $p<0.001$), 모음의 종류($F(1, 220)=4.750$, $p<0.05$)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ㅜ/와 /ㅗ/에서 F1은 성별, 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는 성별($F(1, 220)=13.556$, $p<0.001$), 모음의 종류($F(1, 220)=26.107$, $p<0.001$)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대와 모음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검정 결과, /ㅜ/와 /ㅗ/에서 F2는 세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20대 남녀 화자는 /ㅜ/와 /ㅗ/가 F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70대 남녀 화자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원주 지역어 /ㅜ/와 /ㅗ/는 70대 남녀 화자의 경우 혀의 고저 위치와 전후 위치를 나타내는 F1, F2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20대 남녀 화자의 경우 혀의 전후 위치를 나타내는 F2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3〉과 〈그림 4〉의 모음 공간에 나타난 70대와 20대의 /ㅜ/와 /ㅗ/의 실현 양상을 보면, 70대는 특히 남성 화자에게서 /ㅜ/와 /ㅗ/가 고저의 대립이 나타나지만 20대의 경우 남녀 화자 모두 전후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주 지역어 /ㅜ/와 /ㅗ/는 세대 간 조음 위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12)]

원주 지역어 /ㅜ/와 /ㅗ/의 세대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ㅜ/와 /ㅗ/의 거리 차이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과 같다. 원주 지역어 70대는 /ㅜ/와 /ㅗ/의 거리가 남성 64, 여성 138이고, 20대는 남성 216, 여성 226이다. /ㅜ/와 /ㅗ/의 거리 차이를 측정한 결과, 70대보다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멀게 실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모음 사이의 분석을 통해서도 원주 지역어 /ㅜ/와 /ㅗ/는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ㅜ/-/ㅗ/의 거리(단위: Hz)

성별 / 세대	남	여
70대	64	138
20대	216	226

12) 원주 지역어 70대의 /ㅜ/와 /ㅗ/는 F1과 F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원주 지역어 70대는 F1과 F2만으로 /ㅜ/와 /ㅗ/의 변별 여부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에 F3, H1-H2 등 다양한 음향적 변수를 고려하여, 원주 지역어 70대가 /ㅜ/와 /ㅗ/를 변별하여 산출 및 지각하는 양상과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4.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원주 지역어 70대와 20대의 단모음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설 모음의 세대별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면, 원주 지역어 70대 화자는 /ㅟ/와 /ㅚ/를 주로 단모음으로 실현하고, /ㅖ/와 /ㅐ/를 혀의 고저에 의해 변별하여 실현한다. 반면에 원주 지역어 20대 화자는 /ㅟ/와 /ㅚ/를 주로 이중모음으로 실현하고, /ㅖ/와 /ㅐ/를 변별하여 실현하지 않는다.

원주 지역어 전설 모음에 나타나는 세대 간 실현 차이는 서울·경기 지역어를 중심으로 한 중부 방언의 단모음 특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ㅟ/와 /ㅚ/의 단모음 실현 여부에 대하여, 이승재에서는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의 화자들은 단모음 [ö], [ü]를 곧잘 발음하는 데에 반해, 4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이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대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곽충구에서는 중부 방언의 70대 이상 노년층 화자는 /ㅟ/와 /ㅚ/를 단모음으로 실현하지만 60대 이하 화자는 이를 단모음으로 실현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장혜진·신지영·남호성에서도 서울 방언 60대 화자의 /ㅚ/와 /ㅟ/의 포먼트의 기울기를 측정한 결과, 서울 방언 6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3] 이와 같은 /ㅟ/와 /ㅚ/의 세대별 실현 차이는 원주 지역어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7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대부분 단모음으로 실현하지만, 20대 화자는 /ㅟ/와 /ㅚ/를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실현하였다.

세대별 /ㅖ/와 /ㅐ/의 변별과 합류는 단모음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중부 방언의 경우 곽충구에서는 40대 이상, 정일진에서는 50대 이상, 장혜진·신지영·남호성에서는 60대 이상 화자가 /ㅖ/와 /ㅐ/를 변별한다고 제시한다.[14] 변희경에서는 현재 서울말 중년층 이하에서는 /ㅖ/와 /ㅐ/

13) 이승재, 앞의 글, 25면; 곽충구, 앞의 글, 75-76면;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344-345면.
14) 곽충구, 앞의 글, 76면; 정일진, 앞의 글, 114면;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357면.

의 합류가 산출과 지각 측면에서 모두 완료가 된 상태로 보았다.[15] 또한 /ㅖ/와 /ㅐ/의 합류는 서울·경기의 중부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경상, 전라, 제주 등의 여러 지역 방언에서 중장년층 이하의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16]

원주 지역어 70대 화자와 달리 20대 화자는 각 지역의 중장년층 이하의 세대와 동일하게 /ㅖ/와 /ㅐ/가 합류되어 나타난다. 원주 지역어에서 /ㅖ/와 /ㅐ/의 세대별 차이는 모음 간의 거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70대 화자는 /ㅖ/와 /ㅐ/의 거리가 멀고 /ㅣ/와 /ㅖ/의 거리가 가깝게 실현되지만, 20대 화자의 경우 /ㅖ/와 /ㅐ/ 모음의 거리가 가깝고 /ㅣ/와 /ㅖ/의 거리가 멀게 나타난다.

20대 화자에게 나타난 /ㅖ/와 /ㅐ/ 모음의 합류는 개구도의 축소와 함께 조음상의 노력을 덜고자 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17] 일반적으로 /ㅐ/의 상승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복에서는 서울말에서 젊은층이 /ㅖ/(e)와 /ㅐ/(ɛ)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ㅐ/(ɛ)가 /ㅖ/(e)로 접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18] 채서영에서도 서울말 모음이 /i ← e ← ɛ /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ㅐ/가 /ㅖ/로 상승하는 현상을 논의하였다.[19]

그러나 〈표 5〉, 〈표 6〉과 〈그림 3〉, 〈그림 4〉에 관찰된 원주 지역어 20대 화자의 /ㅖ/와 /ㅐ/의 합류는 기존의 논의와 다르게 /ㅖ/가 저모음화되어 /ㅐ/ 쪽으로의 하강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 화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현상은 전후설의 안정적인 대립(5:5)을 이루던 모음 체계가 /ㅟ/, /ㅚ/의 이중모음으로의 변화와 /ㅖ/와 /ㅐ/의 합류로 인하여 전설모음의 체계가 변하면서 단모음의 전후설 체계가 불안정해지며 나타나게 되는 현

15) 변희경, 「서울말 /ㅗ/와 /ㅜ/를 구별하는 음향변수」, 『말소리와음성과학』 10-2, 한국음성학회, 2018, 15-16면.
16) 장혜진·신지영,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신우봉, 앞의 글 등.
17) 곽충구, 앞의 글, 77면.
18) 이현복, 「서울말의 母音體系」, 『어학연구』 7-2, 서울대 언어교육원, 1971, 21면.
19) 채서영, 「서울말 전설모음 /e/의 변이 현상」, 『어학연구』 37-3, 서울대 어학연구소, 2001, 662면.

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음 체계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ㅣ/ 모음과 변별적인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ㅖ/가 /ㅐ/ 쪽으로 저모음화되어 실현된 것으로 그 원인을 추정해 본다.[20]

다음으로 원주 지역어 후설 모음의 세대 간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면, 먼저 /ㅡ/ 모음은 남녀 화자 모두 혀의 전후 위치를 드러내는 F2에서 세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ㅡ/와 /ㅣ/, /ㅡ/와 /ㅜ/ 모음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70대와 20대 모두 /ㅡ/가 전설 모음인 /ㅣ/보다 후설 모음인 /ㅜ/에 더 가까이 실현되었다.

/ㅡ/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전설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21] 이 /ㅡ/의 전방화 현상은 서울·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 전남 방언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된 바 있다.[22] 장혜진·신지영·남호성에서는 서울 60대 화자는 /ㅡ/가 후설모음인 /ㅜ/와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실현되나, 젊은 세대일수록 /ㅡ/가 전설모음인 /ㅣ/와 가까운 곳에서 실현됨으로 /ㅡ/가 점차 전설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드러낸다고 하였다.[23] 이향원에서는 수도권, 전남권, 경남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ㅡ/의 F2 증가가 /ㅜ/의 F2 증가와 유관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 현상을 청년층 /ㅜ/의 F2가 증가하면 /ㅡ/와 /ㅜ/ 두 모음의 변별을 유지하기 위하여 /ㅡ/의 F2도 함께 증가하는 연쇄적인 변화로 보았다.[24]

원주 지역어에서 /ㅡ/는 혀의 전후 위치에서 세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그림 3〉,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대보다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전설 위치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고모음 /ㅡ/, /ㅣ/, /ㅜ/ 사이의 거

20) 원주 지역어 20대 화자에게 /ㅖ/가 /ㅐ/ 쪽으로 이동하여 합류하는 현상은, 여러 방언 자료와 함께 비교하여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다.
21) 권경근, 앞의 글;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조성문,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인 연구」, 『한국언어문화』 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427-441면; 강지은·공은정, 앞의 글 등.
22) 이향원·신우봉·신지영,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9-2, 한국음성학회, 2017, 39-51면;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23)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앞의 글, 357면.
24)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47면.

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대 화자도 70대 화자와 같이 /ㅡ/가 전설 모음인 /ㅣ/보다 후설 모음 /ㅜ/ 쪽에 가깝게 실현된다. 이를 통해 원주 지역어 20대 /ㅡ/는 70대보다 상대적으로 전설 위치에서 실현되지만, 여러 방언권 청년층에게 나타난다고 언급된 /ㅡ/의 전방화가 원주 지역어 20대에도 명확하게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ㅓ/는 앞선 연구에 따르면 주로 젊은 세대에서 후설 쪽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ㅓ/가 후설 쪽으로 이동하면서 /ㅗ/가 상승하는 현상을 함께 논의하였다.[25] 원주 지역어에서도 20대가 70대보다 /ㅓ/의 F1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남성 70대 503.3Hz 〈 20대 540.5Hz, 여성 70대 571.1Hz 〈 20대 622.8Hz),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원주 지역어 /ㅜ/와 /ㅗ/는 70대의 경우 /ㅜ/와 /ㅗ/의 F1, F2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20대의 경우 두 모음을 구별하는 변수로 F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ㅜ/와 /ㅗ/의 두 모음 간 거리 차이도 70대보다 20대에게서 상대적으로 멀게 실현되었다.

/ㅜ/와 /ㅗ/는 전통적으로 혀의 고저(F1)에 의해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ㅜ/와 /ㅗ/를 변별하는 요소가 F2라고 논의되었다.[26] 성철재에서는 충남 지역 20대 대학생의 경우 /ㅜ/와 /ㅗ/의 F2가 두 모음을 구별하는 변수라고 하였다. 신우봉에서는 제주 방언 70대, 50대 화자의 경우 /ㅜ/와 /ㅗ/의 차이를 F1과 F2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제주 방언 20대 화자는 F2에서만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강지은・공은정에서는 서울 10대, 20대, 40대의 자유 발화를 분석하여 어린 화자일수록 /ㅜ/의 F2 증가로 인해 모음 /ㅗ/와의 대조성이 뚜렷하게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향원・신우봉・신지영에서도 전남권, 경남권 청년층에서 /ㅜ

25) 강지은・공은정, 앞의 글; 신우봉, 「한국어 /ㅓ/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60, 겨레어문학회, 2018, 233-258면.

26) 성철재,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한국어 단모음 포먼트 분석」, 『언어학』 10-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05, 189-213면; 신우봉, 앞의 글; 강지은・공은정, 앞의 글;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등.

/와 /ㅗ/의 거리가 멀어진 집단은 /ㅜ/의 F2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27]

원주 지역어 20대도 /ㅜ/와 /ㅗ/를 변별하는 요소로 F2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20대는 70대보다 /ㅜ/와 /ㅗ/의 거리를 멀리 실현하여 두 모음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ㅜ/가 전설 위치로 이동하고 /ㅗ/가 상승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ㅜ/와 /ㅗ/를 비롯하여 /ㅡ/와 /ㅓ/에 나타난 원주 지역어 20대의 모음 위치의 변화는 후설 모음이 주변에 위치한 모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들의 음가 변화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8]

5. 결론

이 연구는 원주 지역어 70대와 20대 화자를 대상으로 원주 지역어 단모음의 음향적 특성을 분석하여 세대 간 실현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설 모음에서 세대 간 실현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70대 화자는 /ㅟ/와 /ㅚ/를 주로 단모음으로 실현하지만, 20대 화자는 /ㅟ/와 /ㅚ/를 주로 이중모음으로 실현하였다. 원주 지역어 70대 남성 화자는 혀의 고저와 전후 위치, 70대 여성 화자는 혀의 고저 위치에 의해 /ㅖ/와 /ㅐ/를 구별하여 실현하지만, 반면에 원주 지역어 20대 남녀 화자는 /ㅖ/와 /ㅐ/를 구별하여 실현하지 않았다.

후설 모음에서, /ㅡ/의 경우 혀의 전후 위치를 나타내는 F2에서 세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고모음 /ㅣ/와 /ㅡ/, /ㅡ/와 /ㅜ/의 거리 차이를 분석한 결과, 70대 화자와 20대 화자 모두 /ㅡ/가 후설 모음인

27) 성철재, 앞의 글, 208면; 신우봉, 앞의 글, 151면; 강지은・공은정, 앞의 글, 46면;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47면.

28) Kang, Yoonjung,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 23, 2014, pp.1-20; 이주희・윤규철・변군혁, 「서울 방언의 단모음 변화 연구: 중세부터 현대까지」, 『언어연구』 31-4, 한국현대언어학회, 979-998면; 강지은・공은정, 앞의 글;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등.

/ㅜ/와 더 가깝게 실현되었다. /ㅓ/는 세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ㅜ/와 /ㅗ/는 70대 화자의 경우 F1, F2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대 화자의 경우 두 모음을 구별하는 변수로 F2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ㅜ/와 /ㅗ/의 거리에서도 20대 화자가 70대 화자보다 상대적으로 멀게 실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방언학과 음성학 연구에서 관심이 부족하였던 원주 지역어를 대상으로 음향음성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70대 화자와 20대 화자의 단모음 특징과 세대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주 지역어의 성별에 따른 단모음 실현 양상을 명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과 서울·경기 방언권과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원주 지역어를 비롯한 강원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음성과 음운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매우 적은 편이다. 경상, 전남, 제주 방언 등 다른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원주 지역어와 강원 방언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강지은・공은정,「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연구」,『말소리와 음성과학』, 8-4, 한국음성학회, 2016, 39-47면.

곽충구,「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국어학』41, 국어학회, 2003, 59-91면.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지역어 조사 질문지 1,2,3,4,5』, 태학사, 2006.

권경근,「현대국어의 모음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언어학』30, 한국언어학회, 2001, 29-48면.

김봉국,「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원보,「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언어과학회』39, 언어과학연구, 2006, 125-136면.

변희경,「서울말 /ㅗ/와 /ㅜ/를 구별하는 음향변수」,『말소리와음성과학』10-2, 한국음성학회, 2018, 15-24면.

성철재,「충남지역 대학생들의 한국어 단모음 포먼트 분석」,『언어학』10-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05, 189-213면.

송인성,「원주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 변화」, 운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20년 11월 6일.

송인성 외,「원주 방언의 음운 연구」,『우리어문연구』62, 우리어문학회, 2018, 305-341면.

신우봉,「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한국어 /ㅟ/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겨레어문학』60, 겨레어문학회, 2018, 233-258면.

안미애,「대구 지역어의 모음체계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2.

이승재,「모음의 발음」,『새국어생활』3-2, 국립국어원, 1993, 23-38면.

이주희・윤규철・변군혁,「서울 방언의 단모음 변화 연구: 중세부터 현대까지」,『언어연구』31-4, 한국현대언어학회, 2016, 979-998면.

이향원・신우봉・신지영,「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말소리와 음성과학』9-2, 한국음성학회, 2017, 39-51면.

이현복,「서울말의 母音體系」,『어학연구』7-2, 서울대 언어교육원, 1971, 19-24면.

장향실 외,『원주 지역어 조사 연구』, 원주시, 2018.

장혜진・신지영,「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음성학적연구」,『말소리』57, 대한음성학회, 2006, 15-30면.

장혜진・신지영・남호성,「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음성・음운・형태론 연구』21-2, 한국음운론학회, 2015, 289-314면.

정일진,「표준어 단순 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연구」,『말소리』33, 대한음성학회, 1997, 111-125면.

조성문,「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인 연구」,『한국언어문화』2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427-441면.

채서영,「서울말 전설모음 /e/의 변이 현상」,『어학연구』37-3, 서울대 어학연구소, 2001, 655-674면.

하영우, 「순천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언어와 정보사회』 35,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018, 379-405면.
하영우・신우봉,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민족문화연구』 7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299-320면.
황미경, 「부산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20.
Kang, Yoonjung,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 23, 2014, pp.1-20.

【Abstract】

Aspects of vowels in Won-ju dialect

Song, In-S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monophthongs in the Won-ju dialect. For this purpose, voice data of male and female speakers in 70s and 20s from the Won-ju dialect were collected. And Characteristics of monophthongs were analyzed by analyzing the formants(F1, F2) of vowels and measuring the distance between vowels.

As a results, a generational difference was observed in vowels of the Won-ju dialect. Male and female speakers 70s mainly pronounced /ㄱㅟ/ and /ㅚ/ as monophthongs, but male and female speakers 20s mainly pronounced /ㄱㅟ/ and /ㅚ/ as diphthongs. Male and female speakers 70s pronounced /ㅖ/ and ㅐ/ distinctly, but male and female speakers 20s did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se two vowel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was observed in F2 in the articulation position of /ㅡ/, but both 70s and 20s pronounced the /ㅡ/ vowel in back. /ㅕ/ did not show any particular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Finally, /ㅜ/ and /ㅗ/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2 between male and female speakers in 20s.

Keywords: Won-ju dialect, monophthongs, generation, place of articulation on vowel, first formant (F1), second formant (F2), Euclidean distance.

접수일: 2021.06.30.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19.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Kyedang General Education, Sangmyung Univ.